

한국정치 재구성 방향과 과제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제3지대' 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앞으로 대안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고,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윤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욱 전대정치연대 구소 여세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정인화, 장정숙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이 함께해 대안정치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되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을 받아 내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라며 "국민을 위해서 3지대의 3정당 출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정치연대가 민주평화당에서 3지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행동하

는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른미래당에서도 전 당원이 함께하는 빅텐트에 참여할 분위기와 여건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는 실질적으로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 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구도를 위해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정당은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 등 대중적 의제를 바탕으로 폭넓은 지지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보여준다면 성공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주 국회의원은 정책 한계성, 다른 당과의 관계 설정 등 제3정당론 성공을 위해 검토해야 할 여러 실질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당, 합당이었던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진욱 전대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21대 국회 구성 시 여성·청년 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제3지대 신생 정당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김진성 기자



법제처 주관으로 운영 중인 '제12기 어린이법제관'에 참여한 전북·전남·광주 지역 초등학생 38명은 30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다채로운 입법 활동 체험

호남지역 어린이법제관, 전북도의회 방문

법제처 주관으로 운영 중인 '제12기 어린이법제관'에 참여한 전북·전남·광주지역 초등학생 38명은 30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어린이법제관들은 전라북도의회 1층 홍보관에서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 도의회 홍보 동영상 등을 시청한 뒤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모의의회 시간도 가졌다.

실제로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열린 논쟁을 펼치는 등 일일 의원을 경험했다. 모의의회에 이어 법제처 주관

법제교육을 학습했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보와 타협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법제관은 전국 초등학생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양한 입법 활동을 체험하는 법제처 주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다. /김진성 기자

평화당 대안정치 오늘 워크숍 개최

당초 내달 1일 워크숍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 일정 따라 본회의 맞춰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구축을 주장하는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가 전날 교섭단체 3당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예정했던 8월 1~2일 워크숍 및 김대중 전 대통령(DJ) 추도 일정을 조정했다.

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래 1일 대안정치연대 워크숍이 예정되었는데 본회의가 진행된다해서 31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다. 장소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이 10분 정도씩 각자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공개로 할 지, 비공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져 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의도 방문은 8월2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 중이다. 당일 오전 5시50분 KTX 첫 차를 타고간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자강파의 상징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의 얼굴 유성엽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지난 17일 자강파와 제3지대파 간 끝장토론을 위한 의원총회 이후 약 보름간



'옛 대통령 별장지 '저도', 국민들에게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지 '저도'를 국민탐방단과 함께 방문하고 있다. 저도는 진해와 부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1972년에는 대통령 별장(청해대)지로 지정되어 일반인은 거주 또는 방문을 금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2017년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날, 그러나 이렇다 할 긴장감이 흐르거나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장 대변인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안정치는 전날 당 고문단과 오찬을 가졌다. 고문단은 대안정치를 향해 분열이 아닌 통합, 화합으로 제3지대 구축에 힘쓸 수 있도록 정 대표 측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본 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정 대표 측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의원총회 성

"日 편드는 정치인 언론인 각성해야"

조국 전 靑 민정수석, 대일 여론전 계속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연인 신분으로도 끊임없이 대일(對日)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소개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28일 민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조를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영화 '주전장'을 관람

한 사실을 공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일본 우익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